

# 情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이 빼곡한 5월이다. 하지만 각종 기념일을 챙기느라 여기저기 신경 쓰고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정작 중요한 '가족'은 뒷전인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의 달'인 5월, 부모님과 자녀의 손을 잡고 가까운 사찰이나 불교계 복지관을 찾아가 보자.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안성 도피안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 내 환회지와 선혜지 등의 연못에서 진행된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물고기를 방생한 후 생태학자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참가비는 한 가족 당 1만원. (031)676-8700



## '가정의 달' 불교계 행사 풍성 내 가족이 '부처님'입니다

사생대회와 **금정구중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 동요제를 권할 만하다. 5월 20일 오전 10시 용궁사 내에선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전래놀이 한마당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055)354-4464

사회복지법인 범어사가 운영하는 **금정구중합사회복지관**은 5월 9일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제2회 어린이 동요제'**를 개최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월 8일 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051)532-0115

어버이날, 출출하게 보내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1일 자녀가 되어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불교계 복지관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각종 기념식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8일 호린잔치를 개최한다. (051) 866-0454 **개금중합사회복지관**은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관 옆 주차장에서 지역 어르신 700여 분을 모시고 **제13회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노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관람하고 점심식사를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느껴볼 수 있다. (051)893-5034

부산 **공창중합사회복지관**은 5월 3일 지역 내 65세 어르신 90분을 모시고 **진주 천곡사로 경로관광**을 떠난다. 참가비 1만원. 5월 4일 오후 3시 복지관 강당에서는 지역 아동들의 활동과 게임을 볼 수 있는 세쌍들의 큰잔치를 연다. 어버이날인 8일에는 복지관 사랑방에서 지역 어르신에게 카네이션도 담아드리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051)363-206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서울 **광진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5월 8일에는 지역의 무의탁어르신들을 위한 **'칠·팔순잔치'**를 마련해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공연을 열고 선물도 증정한다. 11일에는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제4회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로축제, 추위의 운동회를 개최한다.

한편 **광진노인복지관**은 19일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들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제4회 **'한어르신 심비미팅'**을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한다. (02)466-6242 **성북노인종합복지관**도 5월 17일 어르신들을 위한 심비미팅을 준비했다. 만 60세 이상의 서울 거주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 1만원. (02)921-6090

부산 지역 불교계 복지관들도 어버이날 맞이 행사를 준비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는 5월 17일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에 취미가 있는 자녀라면 **양용공사**가 개최하는 어린이



### '행복 가정 지킴이' 강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행복한 가정 꾸리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행복 가정 지킴이' 강좌를 5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가정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강의로 꾸려진다. 5월 29일 오전 11시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리는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수업이 진행된다. 김연화 사무국장(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하고 행복한 나와 가족', 백경일 교수(동국대 가정학과)의 '행복으로 가는 가정수행공동체', 우성택 PB(삼성증권 자산관리센터장)의 '여성이 이끄는 가정경제' 등의 강사가 마련됐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국장은 "가족 간의 대화법과 경영 리더십을 배움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정 해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결혼 20년차 이하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선착순 40명 모집. 참가비 1만원. (02)722-2102 **여수령 기자**



### 35. 다성 센노리쿠

일본인들은 전통문화를 창시하거나 집대성한 사람의 기념일에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 초상화나 상(像)에 절을 하고 추모하는 관습이 있다. 센노리쿠(1522~1591) 기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의 인연이 있는 차도구를 모아 기념 차회를 여는데, 어떤 기념일보다 성대하게 치러진다. 이것은 센노리쿠가 다도 보급에 많은 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기백과 정신 때문일 것이다.

당시에 일본은 분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런 사회에서 센노리쿠는 차를 마시는 방법을 통해 정신성을 고양하고자 했다. 차 마시는 방법을 다도(茶道)로 정리하

도(道)를 중시하는 사상이 의식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차탕(茶湯)의 새로운 표현으로 정신, 수양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다도(茶道)라는 말이 생겼다. 즉 정신적 내면화에 가치를 두는 미의식이 싹트는 시기로 호화롭기보다는 소박하고, 완벽하기보다는 결함이 있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였다. 다실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며 고 존경심을 유발하여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갖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계급이 높은 사람도 다도 중에는 소박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센노리쿠는 당시 자기 민족의 화합과 서로간의 존경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일본 차도(茶道)의 기본 정신을 다도(茶道)를 통하여 찾고

### 센노리쿠, 다도 정리 및 규격화된 다실 완성 엄격한 형식 현실사회와 융합 위해 정식화

어 규격화된 다실을 만들었다. 다실의 크기는 다다미 2장반(대략 한 평이 조금 넘음)의 크기로 표준을 삼고 실내에 아주 정갈하다. 손님이 앉는 위치에서 화로와 꽃꽂이와 도노노마에 족자 등을 설치한다. 실내



일본의 다성 센노리쿠.

의 출입구는 아주 작게 만들어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외형은 초가로 중간에는 두꺼운 나무로 기둥을 하고 지붕 위에는 대나무와 풀로 덮어서 만든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교훈적인 의미이며,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다실은 소박함 속에 긴장감이 있다.

다실 입구는 석등, 담장, 로지, 세수간 등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고요한 아취를 느끼게 한다. 사람들은 하여금 안정된 규칙을 지키게 하여 평화로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주인과 손님은 차를 마시면서 좋은 글을 생각하고 아주 조용한 기분으로 빠져들게 한다. 규범적인

반성을 하게 한 것이다. 서로 사상이 통하고 맑고 고요한(淸寂) 상태에서 더러움과 외견을 없애고 화합과 공경심(和敬)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센노리쿠는 특정 한 분위기를 갖춘 다실을 만들었다.

전쟁과 폭력이 화경(和敬)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듯 그의 활복은 당시의 사회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일본의 다도는 창조되는 시기와 과정에 피(血)의 대가를 치렀다. 다도는 센노리쿠 이후에 독특한 격식이 만들어져 더욱 발전했다. 하지만 형식적 엄격한 조건과 사제기간에만 가르치는 방법, 직계가족에게만 가르쳐 주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제한되었다. 이런 정신은 일본의 현실사회와 융합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후에 일본은 다도를 정식화하여 보급에 노력하였고 센노리쿠의 다도는 최대의 유포로 전해지고 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 머리에 쓱쓱!!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전화 02)737-0695 / 02)2004-8219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속 한맹을 벗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